

# IT-BT-NT 융합기술 개발 본격화

정통부, 8월25일 워크숍 개최 ... 2006년부터 발전전략 시행 예정

IT(정보기술)와 BT(생명과학), NT(나노기술)를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<IT 기반 융합기술 중장기 발전전략>이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.

정보통신부는 8월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관련부처와 업계, 학계 등 IT·BT·NT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<IT 기반 융합기술 발전전략 워크숍>을 개최한다.

정통부는 워크숍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IT 기반 융합기술 발전전략(2006-2015)을 확정해 2006년부터 전략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, 초기시장 창출 등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추진키로 했다.

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등 BT와 나노기술, IT기술이 통합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.

정통부는 원자 또는 분자 수준에서 조작이 가능한 NT기술이 IT기술과 융합하면 기존의 IT 소재·부품·시스템의 성능과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고 획기적인 소형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또 IT기술이 생명체 현상을 다루는 BT기술과 융합하면 새로운 융합기술제품과 웰빙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정통부 관계자는 “우리나라는 2004년 IT 생산 240조원, 수출 747억달러를 달성하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다른 부문과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8/25>